

디자이너 경력 관리 가이드라인: 디자이너등록제

1984

디자인진흥원사

- 제5대 이광노 이사장 겸 원장 취임
- 말레이시아 연수생 교육
(한·말 기술협력사업)
- 서울을림픽 조직위 주관 해외
기념품 조사단 참가
- 중소기업 디자인·포장 상담실
설치 운영
- 디자이너 등록제 정비, 재실시

한국 디자인사

- 체신부, 정부기관 최초 CI 도입
- LG 애드 설립
- 디자인파크 설립
- 정병규 출판디자인 설립
-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창립
- 『샘이 깊은 물』창간
- 조영제, 88서울을림픽 포스터 제작
- 김현, 86서울아시안게임
엠블럼 디자인
- 대한항공 CI 도입
- 디자인포커스 창립

한국 사회사

- 서울을림픽 주경기장 개장
- 교황 요한 바오로2세 한국 방문
- 과천 서울대공원 개원
- 서울지하철 2호선 전구간 개통

응용미술(應用美術)이라 하면 크게 공예, 공업, 건축, 무대(撫臺), 복식미술(服飾美術) 등으로 나뉘고 ‘산업디자인’이라 하면 이 중에서 상업, 공업 디자인을 떼어내 일컫는다. 이 땅에 자리한 ‘디자이너’는 6~700명을 헤아리지만 상공부 고시에 따른 ‘등록 디자이너’는 430여 명이다. ‘상업 디자이너’가 210여 명, ‘공예 디자이너’ 약 150명 그리고 ‘공업 디자이너’가 70여 명으로 구성비는 49:34:17퍼센트로 된다. 이렇게 보면 ‘산업디자인’ 쪽이 66퍼센트로 단연 우뚝하다. 출신별 분포는 서울대, 홍대가 쌍벽을 이룬 채 전체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30퍼센트쯤이 기타 군소 대학 출신자이다. 이들의 주거별 분포는 95퍼센트 상당이 서울에 편재해 있어 그 마켓 역시 중앙 집중적임을 보인다. 이들은 10퍼센트가 학교 계통, 80퍼센트가 일반 기업체 나머지는 광고 대행업소 또는 개인 연구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에 몸담고 있다. 현역 가운데 주가가 있다는 매명층(買名層)은 직장 봉급 외에 한 달에 한두 건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20만 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는 등 껌뻑한 수입원을 갖고 있어 생활은 중상위층에서 비교적 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³⁴

이러한 1972년 7월 『신아일보』의 ‘문화인 카르테’란 코너의 「산업미술가」라는 기사를 보면 당시 국내 디자이너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KIDP가 처

음 디자이너등록제(상공부 고시 제5403호, 디자이너등록 요령)를 실시한 1970년 7월에는 제1차로 233명이 등록했으며, 1971년 11월 20일에는 168명이 참가한 전국 디자이너 대회가 개최되었다. 1971년에는 203명이 등록하였다.³⁵ 디자이너로 등록된 사람은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해외 파견 훈련, 개발한 디자인의 실용화 및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디자인산업은 물론 디자인 교육 자체가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한 디자이너등록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KIDP가 다시금 디자이너등록제를 정비하고 실시하기 시작한 때는 1984년이다. 따로 등록 기간을 두지 않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등록 부문은 시각 디자인, 공예, 제품 및 환경 디자인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1993년 7월까지 시각 부문 1,095명, 환경 부문 832명, 제품 부문 564명 등 총 2,491명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년 정부의 행정규제 개정 작업으로 디자이너등록제는 폐지되었다. 이후 KIDP의 포털 사이트(www.designdb.com)에 디자이너의 이력과 포트폴리오를 찾아볼 수 있게 공개하다가, 2018년 8월 (사)한국디자인연합회(전 한국디자인기업협회)와 함께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designcareer.kodfa.org)를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통해 디자이너의 이력을 관리하게 됐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이력을 등록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경력을 관리해주는 이 제도는 디자이너의 경력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디자이너가 용역(디자인 작업) 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웹사이트